



숨 / SUM

김형주 개인전

BREATH · LIFE · THE SUM OF RELATIONS

살아 있음의 가장 단순한 증거인 숨에서 시작해,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몸에 남은 기억과 제작의 시간을 하나의 전시로 잇는다.

CONCISE INTERNATIONAL EXHIBITION PROPOSAL · 2026

한눈에 보는 전시

EXHIBITION AT A GLANCE

《숨 / SUM》은 현실의 삶에서 태어난 저고리와 회화를 통해, 한 사람을 이루는 사랑 · 기억 · 시간 · 관계의 합을 보여준다.

1 출발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과 헌신, 실제로 살아낸 시간이 작품의 출발점이다.

2 형상

저고리는 몸의 기억을 품은 옷에서 관계와 삶을 드러내는 조형으로 확장된다.

3 도착

관객은 자신의 삶과 어머니, 다음 세대로 이어질 돌봄의 시간을 돌아본다.

핵심 문장

작품은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머니의 사랑, 살아온 기억과 제작의 열정이 먼저 작품이 되었다.

The works begin in lived reality: love, memory, care, endurance, and the continuing act of making.

숨과 SUM

BREATH AND THE SUM OF A LIFE

숨 / BREATH

숨은 살아 있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이며,
‘나는 존재한다’는 몸의 감각이다. 이
전시에서 숨은 생명, 멈추지 않는 열정,
자신과 타인을 새롭게 바라보는 깨달음을
뜻한다.

생명 · 열정 · 깨달음

SUM / TOTAL

SUM은 합을 뜻한다.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 몸에 남은 기억, 견딘 시간과 만들어 온
형상이 더해져 한 사람의 삶을 이룬다.

사랑 · 기억 · 시간 · 작업

제목의 결합

영문 표기 SUM은 한글 《숨》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동시에 영어의
‘합’이라는 뜻을 더한다. ‘나는 숨 쉬고 존재한다’는 실존의 감각과 그
삶을 이루는 관계의 합이 하나의 제목 안에서 만난다.

SUM follows the sound of the Korean word sum—breath—while adding the English meaning of a total.

작품은 현실에서 태어났다

BORN FROM LIVED REALITY

이 전시의 저변에는 외부에서 가져온 철학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고 지금도 이어지는 삶의 사실이 놓여 있다.

- 1 받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 2 남은 기억 몸과 옷에 축적된 시간
- 3 삶의 제한 상처와 제약을 통과한 경험
- 4 반복한 행위 자르고 잇고 쌓는 제작
- 5 태어난 형상 저고리, 눈과 마른 나무의 조형 언어

현실은 설명의 배경이 아니라
작품을 움직인 재료다.

어머니의 사랑에서 이어지는 시간

LOVE, DEVOTION, AND CONTINUITY

전시가 건네는 경험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이 작업의 정서적 장식이 아니라 작품을 탄생시킨 삶의 기반이다. 저고리는 돌봄을 받은 몸과 그 돌봄을 기억하는 몸 사이의 관계를 드러낸다.



관객은 작품 앞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어머니를 떠올린다. 그리고 받은 사랑이 다음 세대의 돌봄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생각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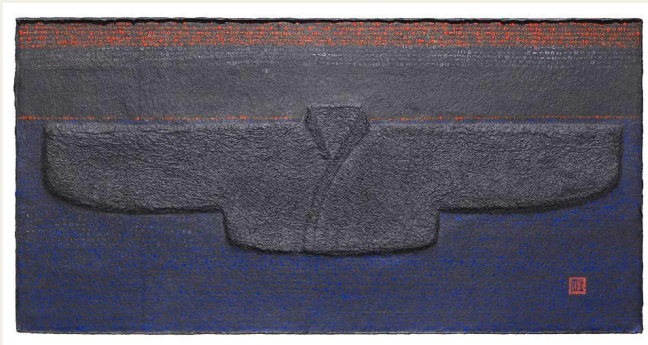
나 → 나의 어머니 → 다음
세대

하나의 기억은 개인에게 머물지 않고 관계와 시간 속에서 계속 다른 의미를 얻는다.

저고리는 한 사람의 옷에서 시작해 사랑과 헌신의 관계를 품는 형상으로 확장된다.

저고리가 삶의 형상이 되는 방식

FROM GARMENT TO A FORM OF LIFE



반복되는 윤곽과 물질의 밀도



Motherhood Wirenet, silk

비어 있는 몸과 투과되는 기억

1 비어 있는 몸

사라진 몸을 재현하지 않고, 그 몸이 남긴 자리와 관계를 느끼게 한다.

2 반복되는 윤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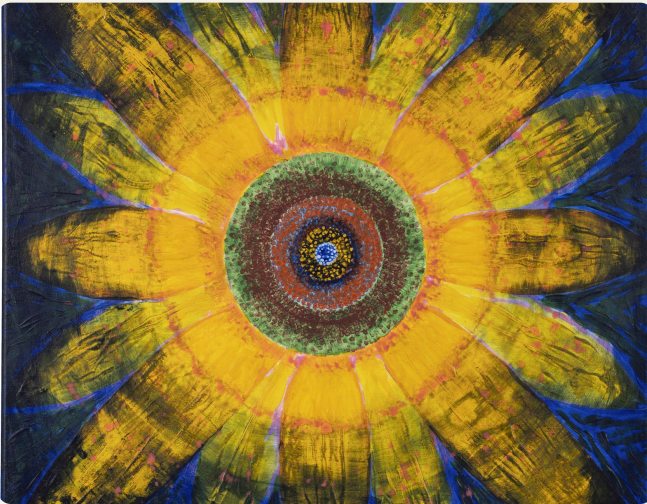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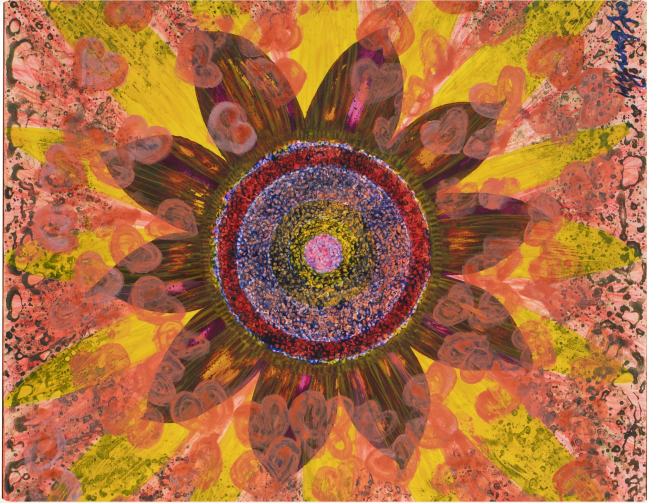
같은 형식의 반복은 시간이 쌓이는 방식과 삶이 계속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준다.

3 재료의 흔적

천, 종이, 실, 철사와 마른 나무는 견딘 시간과 손의 반복을 그대로 품는다.

눈: 바라봄과 깨달음

THE EYE AS ATTENTION AND AWAKENING



최근 회화에 반복되는 눈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며, 익숙했던 관계의 가치를 다시 깨닫는 시선이다. 저고리가 몸과 기억의 자리라면, 눈은 그 삶을 바라보는 현재의 의식이다.

The eye adds a present gaze: attention to the self, the other, and the value of relation.

삶이 축적되는 여섯 구간

SIX CHAPTERS OF ACCUMULATION

동선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생명에서 관계로, 기억에서 위기로, 창작에서 지속으로 이어지는 축적의 과정이다.

1. 첫 숨

배냇저고리와 최초의 생명

FIRST BREATH

2. 받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

RECEIVED LOVE

3. 입고 살아온 시간

몸과 옷에 남은 기억

WORN TIME

4. 견딘 시간

제한이 새로운 표면이 되는 전환

ENDURED TIME

5. 만든 형상

줄기와 가지를 갖춘 마른 나무의 반복

MADE FORM

6. 이어지는 삶

거대한 저고리가 여는 다음 시간

CONTINUING LIFE

생명 → 관계 → 기억 → 위기 → 창작 → 지속

The 2nd Floor plan of EK ART GALLERY features six numbered exhibition spaces and a central open area. The spaces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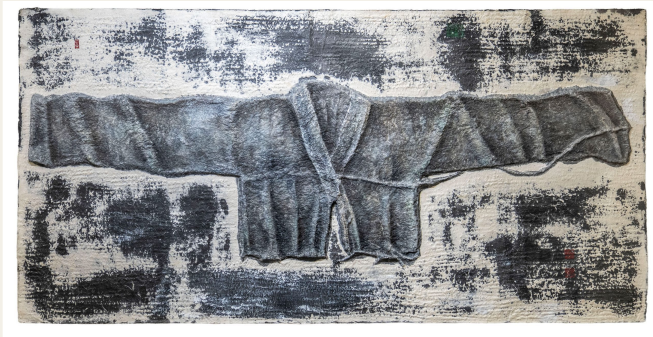
- 1. 첫 숨 (FIRST BREATH)**: Located at the bottom center, near the stairs.
- 2. 받은 사랑 (RECEIVED LOVE)**: Located at the top center.
- 3. 입과 살아온 시간 (WORN TIME)**: Located on the right side.
- 4. 견딘 시간 (ENDURED TIME)**: Located on the right side, adjacent to Space 3.
- 5. 만든 형상 (DRY TREES · CONVEX WALL)**: Located in the center, surrounding a large curved wall.
- 6. 이어지는 삶 (CONTINUING LIFE)**: Located on the left side, labeled as a "Special Room".

A central area is labeled "보이드 · 아래층으로 열림 (OPEN TO BELOW · NO DISPLAY)". The plan includes various dimensions and architectural details such as walls, doors, and a staircase. A legend at the bottom left identifies the "중앙 보이드" (Central Void) and "전시 불가 · 아래층으로 열린 공간" (No Exhibition Possible · Space Opened to Below Floor).

중심 원칙 | 원형 보이드 안에는 작품, 조명, 구조물과 관람 동선을 두지 않는다. 5구간은 볼록한 벽에 줄기와 가지를 갖춘 마른 나무를 반복 부착하고, 6구간은 거대한 저고리로 마친다.

생명에서 관계로

FROM LIFE TO RELATION



1 · 첫 숨

입구에서 배넛저고리와 최초의 생명을 만난다. 작은 형상과 충분한 여백으로 관람의 속도를 낮추고, ‘살아 있음’이라는 전시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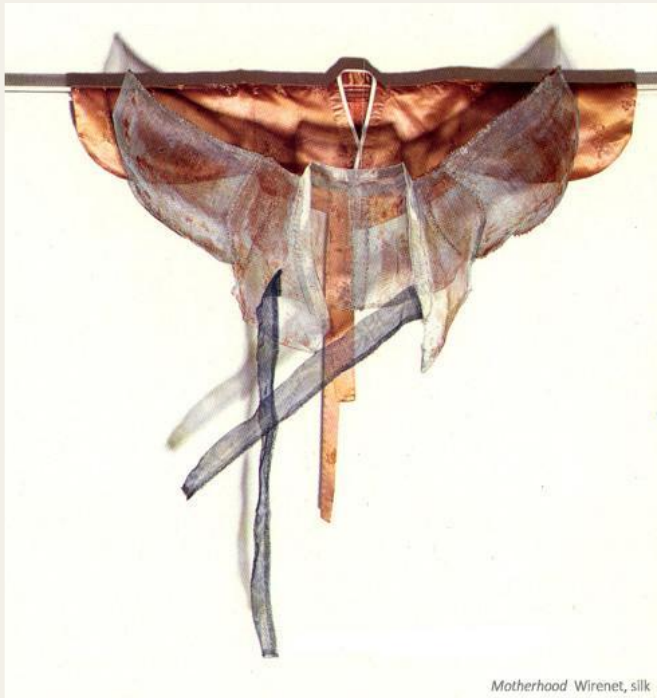
2 · 받은 사랑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담은 작품군을 배치한다. 전기적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옷의 기억, 손의 흔적과 관계의 온기가 작품에서 먼저 전달되도록 한다.

관람의 축적 | 생명 → 관계

기억에서 전환으로

FROM MEMORY TO TRANSFORMATION



Motherhood Wironet, silk

3 · 입고 살아온 시간

저고리가 평면, 입체, 설치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재료와 크기의 작품을 중첩해 한 사람 안에 여러 시간이 함께 존재함을 드러낸다.



4 · 견딘 시간

병실의 제한과 고통 속에서 변형된 표면을 밀도 있게 배치한다. 이 구간은 어두운 결말이 아니라, 삶의 제약이 새로운 제작 방식으로 바뀌는 전환이다.

관람의 축적 | 기억 → 위기 → 변형

창작에서 지속으로

FROM MAKING TO CONTINUATION



5 · 만든 형상

중앙 보이드는 사용하지 않는다. 불룩한 벽에 아래의
곧은 줄기와 위의 가지를 모두 갖춘 마른 나무를 반복
부착한다. 각각의 나무가 하나의 형상으로 읽혀야
한다.



6 · 이어지는 삶

Special Room에 거대한 저고리 조형 한 점을 배치한다.
비어 있는 몸과 펼쳐진 소매는 받은 사랑이 다음 세대와
미래로 이어지는 열린 결말을 만든다.

관람의 축적 | 창작 → 지속 → 열린 SUM

첫 장면: 불록한 호형 벽

ENTRANCE AND THE PROJECTING CURVED WALL



공간 시뮬레이션. 호형 벽은 안으로 들어간 곡면이 아니라 관람객 쪽으로 불록하게 나온 벽체로 반영했다.

시선

입구에서 작은 저고리에 먼저 시선이 머문다.

벽체

돌출된 호가 다음 공간을 한 번에 드러내지 않는다.

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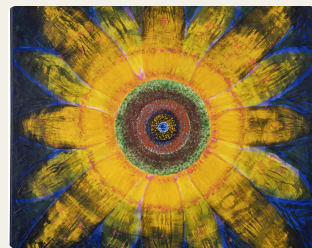
여백과 낮은 정보 밀도로 첫 숨의 속도를 만든다.

현재 회화: 눈의 시선

CURRENT EYE PAINTINGS IN THE GALLERY



공간 시뮬레이션. 실제 현재 회화의 눈 모티프를 반영했으며, 돌출된 호형 벽을 따라 시선이 이동하도록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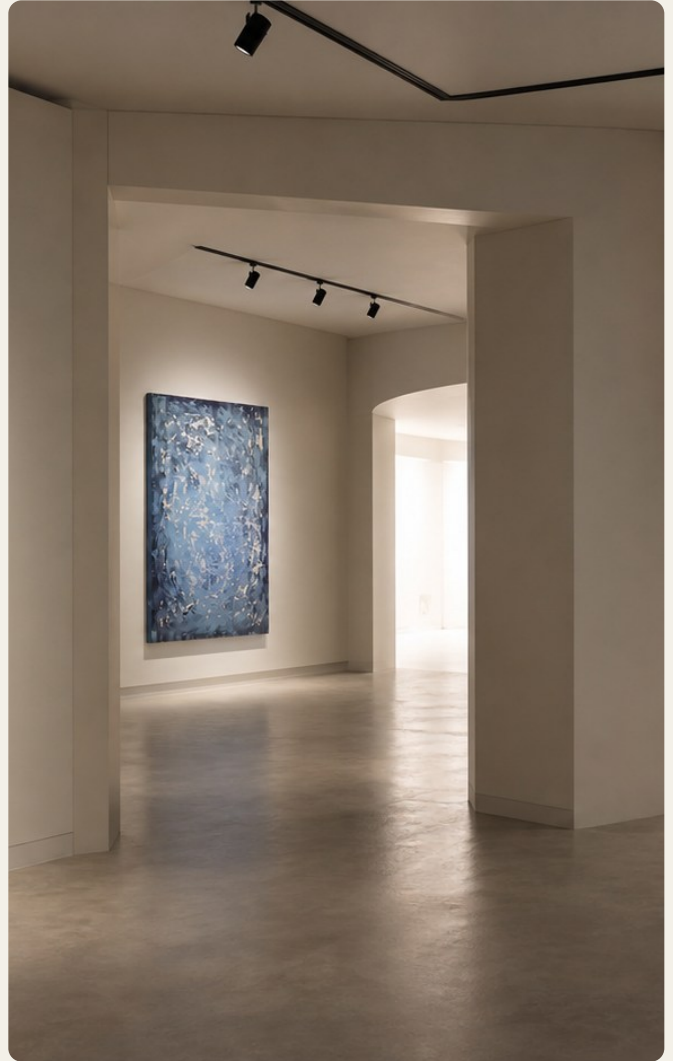
기억과 견딤의 밀도

MATERIAL MEMORY AND TRANSFORMATION



3 · 입고 살아온 시간

서로 다른 저고리가 한 시야 안에 겹쳐 보이도록 거리와 높이를 조절한다.



4 · 견딘 시간

빛을 낮추되 출구 쪽 밝기를 남겨 압박에서 전환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든다.

시뮬레이션은 작품군의 밀도와 관람 감각을 제안하며, 최종 설치의 실제 치수와 작품 상태에 맞춰 조정한다.

볼록한 벽과 거대한 저고리

THE CONVEX WALL AND A MONUMENTAL JEOGORI



5 · 만든 형상

중앙 보이드는 비워 둔다. 전시장 안에서 보이는 볼록한 벽에, 아래 줄기와 위 가지가 분명한 마른 나무 형상을 반복 부착해 얇은 부조를 만든다.



6 · 이어지는 삶

거대한 저고리 한 점이 비어 있는 몸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삶을 공간 전체로 확장한다.

설치 전제 | 마른 나무 방염 및 은폐 고정 · 벽면 돌출 깊이 최소화 · 거대 저고리 구조와 피난 동선 현장 검토.

관람객을 위한 한 벽의 글

RECOMMENDED ONE-WALL INTRODUCTION

권장 국문 · 약 190자

숨은 살아 있다는 가장 단순한 증거이며, ‘나는 존재한다’는 몸의 감각이다.

김형주의 저고리는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과 헌신, 몸에 남은 기억, 살아낸 시간과 작업의 열정을 담는다. 한 사람의 옷은 관계와 삶의 형상으로 확장되고, 최근 회화의 눈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깨달음의 시선을 더한다.

SUM은 이 모든 시간이 더해진 합이다. 작품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과 어머니,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질 사랑을 생각한다.

ENGLISH WALL TEXT

Breath is the simplest sign of life and the bodily awareness that I exist. Hyungjoo Kim's jeogori gathers a mother's love and devotion, embodied memory, lived time, and the passion to keep making. A personal garment expands into a form of relation and life; recent eye paintings add attention and awakening. SUM is the total of these times. The works invite us to think of our own lives, our mothers, and care carried into the next generation.

한 벽에 이 글만 배치하고, 작품별 캡션은 별도의 낮은 정보층으로 분리한다.

명료하게 남길 것

WHAT THE EXHIBITION MUST RETAIN

1 한 번만 말한다

숨, SUM, 어머니의 사랑과 시간이라는 핵심은 도입 벽에서 한 번 명료하게 제시한다.

2 작품이 먼저 보인다

작품 주변의 설명을 줄이고 재료, 비어 있는 몸, 반복과 눈의 시선이 직접 경험되게 한다.

3 고통을 결말로 만들지 않는다

견딘 시간은 전시의 종착점이 아니라 새로운 제작과 지속으로 넘어가는 전환이다.

4 보이드를 침범하지 않는다

원형 공간은 아래층으로 열린 비사용 영역이다. 마른 나무 반복은 불룩한 벽면에만 고정한다.

한 생은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받은 사랑, 살아낸 기억, 견딘 시간과 만들어 온 형상이 더해져 한 사람의 SUM이 된다.

그리고 그 숨은 다음 관계와 다음 시간으로 이어진다.

WORK IMAGES Artist archive / hyunjookim.com · FLOOR PLAN EK 2nd Floor plan provided for planning

SPATIAL VISUALIZATIONS Concept images for curatorial planning; final dimensions and installation require on-site verification.

숨 / SUM — BREATH, LIFE, AND THE SUM OF RELATIONS